

2024. 1. 23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22일 오후 14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교통정책과장

이진구

2133-221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교통수요관리팀장

김종민

2133-2224

서울시, 국토부·수도권 지자체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에 나선다

- 1.22.(월) 국토부 장관, 3개 시·도 지자체장, 새로운 대중교통 미래를 위해 한자리에
- 1.27.(토), 2024년 대중교통 혁신 이끌 서울시 ‘기후동행카드’ 출발
- 5월 K-패스, The 경기패스, I-패스 시행 예정…자신에게 유리한 제도 “행복한 선택”
- 성공적인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 협력키로
- 서울시,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출시, 김포·인천 확대로 지속적인 혁신 예고

- 1월 22일, 서울시와 경기도, 인천시, 국토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, ‘기후동행카드’ 출시를 시작으로 이용 시민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.
- 1월 서울시 ‘기후동행카드’를 시작으로 5월 국토부 ‘K-패스’, 경기도 ‘The 경기패스’, 인천시 ‘I-패스’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2024년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.
- 수도권 3개 시·도와 국토부는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할인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.

- 그간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, 대광위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더 나은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.
 - 이 자리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되는 ‘기후동행카드’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.
- 다양한 할인제도의 선두 주자로 나선 것은 서울시 ‘기후동행카드’이다.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 대로 서울시 지하철, 버스, 따릉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으로 오는 1월 27일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.
- ‘기후동행카드’는 횡수 제한 없는 신개념 서비스로 쓸수록 할인 혜택이 증가하며,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까지 연결,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- 따릉이 자전거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,000원권과 6만 5,000원권으로 구분되며, 이용자 편의에 따라 모바일과 실물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 시민들은 자신에 맞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.
 - 또한,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따릉이와 리버 버스 등 차세대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방식으로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하여 승용차 이용자가 친환경 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.
 - 서울시는 더 나아가 문화, 체육시설까지 포괄한 다양한 옵션 요금제를 개발하여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,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- 오는 5월부터는 국토부에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(일반인 20%, 청년층 30%, 저소득층 53%)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‘K-패스’를 출시하고, ‘K-패스’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혜택을 차별화한 경기도의 ‘The 경기패스’와 인천시의 ‘I-패스’도 함께 운영된다.
- 이러한 대중교통 할인정책은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어,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행복한 고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.
- 이날 서울시는 ‘기후동행카드’ 비전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서비스 향상 계획도 발표했다. 상반기 중 ‘기후동행카드’ 청년권을 출시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·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청년권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 19세~34세의 청년들은 월 5만8천원 정도로 ‘기후동행카드’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시행 시기나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.
-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 김포, 인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‘기후동행카드’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. 서울시는 ‘기후동행카드’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는 적극 협의하여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.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2024년은 1월에 출시되는 서울시 ‘기후동행카드’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”이라며, “5월에 출시되는 K-패스, The 경기패스, I-패스의 성공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 및 국토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며,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혜택을 추가·발굴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